

‘세월의 장터’...5개층 가득 담은 삶의 흔적들

내일 개관하는 광주 ‘비움 박물관’ 가 보니

대형문구점 ‘모던아트’ 이영화 대표 설립
“선뜻 버려지는 옛 물건 안타까워 수집”
40년간 모은 생활도구·민속품 수만점
1~4층 봄·여름·가을·겨울 테마별 전시



광주시 동구 대의동 전남여고 맞은편에 위치한 비움박물관 내부 모습. 손때 묻은 민속품 수만점을 전시하고 있다.



‘비움 박물관’ 전경



대가족 밥상을 책임졌던 가마솥과 나무 밥주걱, 보기만 해도 마음이 푸근해지는 쌀독, 어머니가 실을 잣던 물레. 지금은 추어 속으로 숨어버린 옛 물건들이다. 1960년대 ‘새마을운동’을 거치며 우리나라는 현대적 생활양식으로 바뀌었다. 가마솥은 전기밥솥이, 베틀로 짜던 무명천은 나일론이 대신 하며 전라도말로 이른바 ‘쓰잘대기’ 없는 물건들은 고물상 또는 아궁이 속으로 자취를 감췄다.



이영화 대표

개관(17일)을 앞두고 미리 방문한 ‘비움박물관’(관장 이영화)은 우리가 예전에 사용하던 손때 묻은 민속품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다. 이영화(여·69) 관장은 시내 학원가에서 대형문구점 ‘모던아트’를 약 20년간 운영하고 있다. 그녀는 지난 40년간, 직접 사용했거나 전국 벼룩시장에서 파는 민속품 수만점을 모았다. 사람들과 옛 물건에 대한 추억을 나누기 위해 지난 2년간 건물을 신축하고 수집한 민속품을 정리해 박물관을 세웠다.

이 관장은 “시집 와서 시할아버지 편지함을 버리려는데 오래된 물건이라 선뜻 못 버렸다”며 “그 이후부터 가난이 물어왔다고 입신여겼지만 삶의 일부분을 담당했던 물건들을 하나하나 모으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광주시 동구 대의동 전남여고 길 건너편에 위치한 5층 규모(1300㎡) 박물관은 옛 광주읍성 동문인 ‘서원문’에 자리잡고 있다. 이 관장은 “순전히 우연”이라고 했지만 박물관 주제와 장소가 가진 역사적 의미가 상통했다.

외부 모습부터 전통과 현대를 조화시킨 독특한 모양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세워진 기다란 나무 기둥 세개는 처마 밑 기둥을 연상시켰다. 회색 시멘트 외벽에 큼직하게 설치된 나무 조형물은 창호지를 덧씌웠던 문틀 모양이다.

입구를 들어가면 성인 두세명은 넉넉히 들어갈 ‘똥 향아리’가 눈에 띈다. 땅 속에만 숨어있어 걸모습을 보기 힘들었던 똥 향아리는 지름 약 1m 입구에 비해 밑으로 내려갈수록 좁아지는 모양이다. 어감이 주는 불편함을 뒤로 하고 봤을 때 은근한 곡선미가 느껴진다.

똥 향아리는 박물관 이름과 건물 설계 모티브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원초적인 것을 받아내고 새로운 생명을 위해 비워지는 모습에서 ‘비움’을 따왔다. 건물도 중앙에 옥상부터 1층까지 이어진 계단을 설치해 가운데가 빈 구조다.

박물관은 ‘세월의 장터’를 큰 주제로 1층은 수이다. 각각 다른 모양이 찍힌 떡살 수십개 중에는 이 관장이 직접 썬던 물건도 있다. 천장 선반 밑에는 둥근 베개를 사래처럼 설치한 모양이 재미있다.

여름은 농사와 남성의 계절이다. 3층에서는 손자루가 반들반들한 나무 곡괭이, 부채, 솔병 등을 통해 피약벌 밑에서 땀흘려 일하는 남정네가 느껴진다. 2층 가을은 추수와 남녀 만남을 이야기한다. 곡식을 보관하던 향아리, 소쿠리, 박 바가지 등 각종 용기와 가마솥이 걸린 부뚜막, 절구, 전통 혼례 복장 나무 인형 등을 선보인다. 한편엔 조성한 선비방은 벽에 걸린 두루마리가 인상적이다.

1층은 한겨울 농한기 사람들이 둘러 앉아 있던 사랑방을 형상화했다. 약 50명이 앉을 수 있는 이곳은 앞으로 세미나, 인문학 강의 장소로 사용할 예정이다. 사랑방에는 약 10cm크기 짙·나무 공예품 수천점을 배치시켰다.

이외에도 계단 주위에는 빨랫줄, 농기구 등이 있는 시골집 마당을 재현해 농기구 나무삽 등을 전시해 이동 중간에도 구경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매표소 옆에는 ‘입춘대길’을 써붙인 어느 시골집 나무대문을 그대로 옮겨놓았다.

박물관 곳곳에는 이 관장이 전시품을 소재로 직접 쓴 시가 걸려있다. “여기 서있는 물건들의 의도와는 무관하게...감동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는 시 ‘민속이 머무는 곳’은 박물관 개관을 앞둔 마음이 전해진다.

이 관장은 “지난 40여년간 작고 애잔한 나무 조각으로 만든 우리 민속품들을 어루만지며 힘들고 고단했지만 행복했다”며 “박물관에서 짐승도 가족처럼 대해주고 막사밭에 고봉밥을 퍼담아 주던 인심을 맞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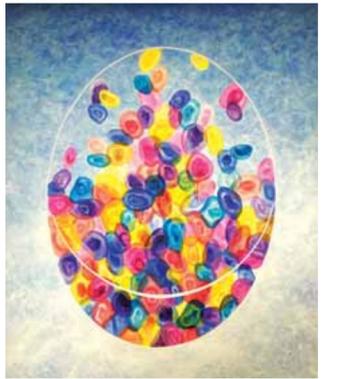
운영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매주 월요일 휴관). 입장료 성인 1만원, 청소년 7000원, 어린이 5000원. 문의 062-222-6668.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겨울’, 2층 ‘가을’, 3층 ‘여름’, 4층 ‘봄’ 테마로 구성했다. 무등산이 한눈에 들어오는 풍경을 자랑하는 5층 옥상에는 장독대가 펼쳐져 있다. 5층부터 내려오며 톨로 양옆으로 빼곡한 전시품을 보고 있으면 좁다란 시골길을 따라 과거로 돌아가는 기분이다.

4층 ‘봄’은 여성이 주로 사용하던 물건들이 전시됐다. 단아한 백자, 물레, 비단천, 밥그릇과 이름 모를 풍속화들이 그린 미인도를 볼



‘Life fantasy’

이명숙 개인전

27일까지 CNUH갤러리

이명숙 작가가 전남대학교병원 CNUH갤러리에서 27일까지 개인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생명의 신비를 탐하는 미의식의 여행’을 주제로 우주와 생명의 소중함을 나타낸 작품 20여점이 선보인다.

한때 지병으로 투병생활을 했던 이씨는 생명의 소중함을 투명한 채색기법으로 캔버스에 담았다.

특히 작품 ‘Life fantasy’ 등은 붓으로 그린 것이 아니라 물감을 떨어뜨리는 독특한 기법을 사용했다. 붉은 물감을 일정한 높이에서 한방울씩 떨어뜨려 자연스러운 번짐 효과를 유도했다.

이씨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졸업 후 현재 한국 미협·한국 남부 현대미술협회·세계미술 교류협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며 개인전 10여회, 그룹전 40여회를 가졌다. 문의 062-222-5104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오월길 아카데미’ 공개 강좌

서명숙 올레길 이사장 강연

19일 靑州화전당 정보원

길을 통한 새로운 도시 문화를 꿈꾸는 ‘2015 오월길 아카데미’가 시민들과 함께 들을 수 있는 공개 강좌를 개최한다.

19일 오후 2시 아시아문화전당 정보원에서 열리는 강좌에는 서명숙(사진) 제주 올레길 이사장이 함께한다.

전남대학교문화전문대학원이 주최하는 이번 아카데미는 올레길을 알리고 걷기와 길을 통한 문화체험 콘텐츠를 만드는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으로 현재 30명이 교육을 받고 있다.

공개 강좌에는 선착순 20명이 참여할 수 있다. http://me2.do/5FLaV8wK. 문의 070-4239-5040. /김미은기자 mekim@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사까지...
중매잘한다~ 성사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광주서석초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전남대학교, SKY in Seoul

초혼 추천회원 **재혼**

남 의사, 변호사, 의사, 한의사 28~45세 시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공무원(5급~9급) 27~42세 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 삼성, 현대, LG직원 28~47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교사, 교수 28~49세	여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아나운서, 회사원 26~41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42세 스타일리시, 영양사 26~42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북 27~36세	남 의사, 변호사 32~72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2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4세 대기업 간부 36~67세 회사원, 자영업 33~61세 무출산 여성 희망 33~48세	여 VIP 희망 여성 32~45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61세 공무원, 교사 32~54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자영업, 가사 35~60세 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
---	---	--	--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해나은행 B1D 8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외국인들에게 더 사랑받는 가장 제주다운 리조트
환상의 섬 제주주의 아름다운 자연속에서 힐링하는곳!
 가족, 연인, 기업워크숍, 수확여행단 등 예약 064-739-8899

제주아이브 제주아일랜드 사자묘지 신축완료 (999-24 (99)동 25-1)

제주아이브

동나무 독채형객실 레지던스형객실 골프투어 최적지 한라산등반 최적지 쇼핑의 편리 알리버드이벤트 렌트가 90% 할인 단체수요 사설연회	핀란드풍을 직접 수입하여 정성껏시공한 프라이빗한 동나무 독채형객실 바다전망과 2인스파를 보유한 레스던스형 리조트 타입의 객실 레이크힐스acc, 우리들acc, 롯데스카이힐acc, 링크acc, 4개골프장 5분거리, 골프투어 최적지, 차량이동시간임) 한라산 정상코스 15분, 성판역 차량으로 25분 소요, 한라산 등반 최적한 입지, 차량이동시간임) 중문관광단지 10분, 서귀포 시가지, 이마트&홈플러스 15분, 차량이동시간임) 주중 30%, 주말 20% 할인적용(단, 상수기 - 준상수기 - 연휴기간 제외) 벨라 15원 동나무원룸 1박 + KS or YF소나타 24시간 79,900원(비수기 주중 기준) 300명 단위의 기업단체 및 수확여행단, MICE가능, 50인 수용 가능한 최신 워크숍을 완벽, 150인 수용가능한 아이브를 완벽, 조·중·석식가능
---	--